

|                           |            |       |
|---------------------------|------------|-------|
| 주일에배                      | 오전(1부) 대방동 | 7시    |
|                           | 오전(2부)     | 7시    |
|                           | 오전(3부)     | 10시   |
|                           | 오후(4부)     | 3시    |
|                           | 수요일예배 (저녁) | 8시30분 |
| 서울 교회 02)533-9191         |            |       |
|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            |       |



|                      |            |     |
|----------------------|------------|-----|
| 주일에배                 | 오전(1부)     | 7시  |
|                      | 오전(2부)     | 10시 |
|                      | 오후(3부)     | 3시  |
|                      | 저녁예배       | 7시  |
|                      | 금요일예배 (저녁) | 8시  |
| 인천 교회 032)763-9191   |            |     |
|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            |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9월 22일 (제102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무임승차는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면 이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요, 둘째는 일을 훼방하는 자요, 또 하나는 하거나 말거나 이 일에 관심이 없는 방관자다.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사람이다. 누군가는 밥상을 차리느라 시장에 다녀오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느라 애쓰는 동안 놀고 있다가 밥상이 차려지니 숟가락 달랑 들고 와 밥을 먹으려는 사람 말이다. 무임승차하겠다는 거다. 그러나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 어마한 것을 아는가?

10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앞두고 모두가 분주하다. 너나 할 것 없이 40일 작정기도를 하고 있고, 출연진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그런데 ‘그날은 휴일이 아니니까 나는 못가.’ 하고 아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자가 있다. 더는 ‘왜 번거롭게 자꾸 이런 집회를 하는 거야?’ 하며 당구 알 굴리듯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돌리는 자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는 ‘그날 참석만 하면 되지.’ 하기도 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백성에게 공포한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벽 쌓기에 힘쓴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훼방자도 있었다. 그들은 조롱과 비난을 일삼으며 일하는 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또한 멀리서 구경만 하던 귀족들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훼방자들과 방관자들은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결코 함께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힘든 과정에 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나는 사정은 하지 않는다.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그러나 세상에서도 십시일반(十匙一飯)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작은 힘이라도 합친다면 이 성회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 모두가 잠잠할 때 누군가 외쳐야한다

목사님과 해외집회를 다닐 때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집회를 주최한 목회자 및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할 때면 꼭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건건 훼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을 끼는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돌아가는 추이를 보다가 마지막에 슬그머니 숟가락만 얹으려는 암체 족속들도 있지요. 그러나 단언컨대 여러분이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

서 정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기 바란다.

지난 2014년 1차 시청집회 때 SNS홍보 영상을 보고 타고단의 어느 성도가 글을 보내왔다. 그가 주장하는 주안점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일로 질타 받고 있는 이 때에 굳이 서울시청광장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소음으로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 교회에 누가 되는 일 아니냐는 것이었다. 잠잠히 기도할 때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그제 바로 악한 마귀의 노림수라고 답해주었다. 어차피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불을 들어야 하고 차가운 새벽을 깨워야 한다. 바로 그 일을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에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마땅하다. 목사님이 늘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이던가?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핍박과 순교가 와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던가?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가야 할 길인 것이다.

지난 주일에배를 마치고 시청집회 때 진행될 순서를 미리 점검하는 1차 리허설이 있었다. 아직 준비과정에 있어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각자 맡은 순서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청년들을 보며 정말 감회가 깊었다. 지극히 작은 역할이지만 기쁨으로, 온 열정을 다해 임하는 모습에 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외쳐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나 훼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에 울무와 장애물로 갚아주실 것이요,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잠언 1장 말씀처럼 하나님도 그들이 위경에 처했을 때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재앙을 만날 때 비웃으실 것입니다(잠1:26).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듯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하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이는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10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 각자 유념해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15:19). 세상은 항상 교회를 향해 그러했다.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몇 타락한 종들과 교회의 비도덕적 행태로 인하여 마귀, 곧 세상이 참소할 구실을 준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 그렇다고 교회가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져있다면 세상은 더욱 악한 마귀의 입맛대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구제의 사역을 전개해가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뭐라 해도 누군가 이 어둠을 밝히는 헛

편 도전도 되고, 나아가 우리 교단의 미래에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었다. 목사님의 신앙과 삶의 철학을 사사 받은 우리의 2세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40일 작정기도가 계속 진행 중이고, 곧 거리홍보에도 나서게 된다. 또한 9월 30일에는 단상설치 등 최종준비가 진행된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내 아버지의 일이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또 한 번 명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40일간 작정기도회 8월 22일(목)- 9월 30일(월)

##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39:13~18)

#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남이 가진 것, 내게 없는 것만 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비록 작은 것이고,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찾아 내 삶에 활용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따르던 생도 하나가 죽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빚만 남기고 죽은 겁니다. 어느 날 채주가 와서 빚 대신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생도의 아내는 화급히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자 엘리사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왕하4:2)고 말합니다. 생도의 아내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리고, 아들과 방에 들어가 문을 건 채 기름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생도의 아내와 아들이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는데 빌려온 그릇이 다 차도록 기름을 따르고 따라도 줄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이 하나도 없었을 때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하니 엘리사는 그것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황에 보태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네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 곰벥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배고플 것을 염려하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 그것도 빈들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막6:38)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게 뭐냐?’ 이러신 겁니다. 안드레가 보니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서 왔는데, 그 안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이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라 하셨는데, 글썽 5천 명이 다 먹고 부스러기가 열두 광주리나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가진 것,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통해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리라” 하자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출4:13). 나는 늙은 양치기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 손에 있

는 것이 무엇이냐?”(출4:2)고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40년 동안 양철 때 사용한 손때 묻은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찌니라”(출4:17).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증거했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으며,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입이 둔하여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출4:14)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나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나가 즉시 장사를 했으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배움이 짧아서, 돈

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한 병,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낡아 반질반질한 지팡이 같은 별 쓸모없는 것들도 당신이 원가 이루는데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지 말고 빈약한 것일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찾아 사용하세요. 분명히 역사는 이뤄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신바람 나게 살려면 잘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해야 결실도 있고 신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잘하는 하는데 잘하지 못한다 면



총회장 이초석 목사

스 트 레 스 만 쌓이 거든요. 아 인슈타인은 바 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더 잘하는 과학 쪽을 선택하여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류나 어류나 포유류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은 알을 낳으면 흙으로 덮거나 안전한 곳에서 부화할 때까지 품거나 합니다. 그런데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는 그게 뜨거운 모래에 살아지든지, 발에 밟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에서 새끼가 부화해도 이게 내 새끼가 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조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달리기입니다. 타조는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니 말을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욥39:13~18). 만일 타조가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지식 기르는데 신경을 쓰고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괜히 덩치가 커서 난리만 칠 뿐, 새끼 건사도 제대로 못하고, 타조 삶도 죽을 맛일 겁니다. 어련히 하나님이 타조 알을 밝혀도 잘 안 깨지도록 이미 만드셨으니

아무데나 쏜뿔 알 낳고는 그저 달리기만 잘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조가 새끼 돌보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나까, 돈이 된다니까, 아니면 좋아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는 겁니다. 잘하는 일을 하셔야지요.

## 남의 억만금보다 내 백만 원이 낫다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성격, 재능, 인품 등을 가장 적합하게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썩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잠16:4).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게 만드셨습니다. 김연아는 운동 중에서도 피겨스케이팅을,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운명이나 팔자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 썩음에 적당하게’ 만드셨으니 잘하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교사가 될 수 없듯이(고전12:29), 신체에도 눈이 있고, 발이 있듯이(고전12:17)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행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래서 신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누군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니 감람나무가 말하길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왕이 되리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니, 그 왈,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라고 했고,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 했더니 그도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버릴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무리 좋은 자리요, 좋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은 것을 할 수 없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가시나무만 할 줄 모르면서 ‘왕이 되겠노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벗어나면 고달픕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약3:12). 그러니 없는 것 탓하며 살지 마세요. 못하는 것 하면서 진 빼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활용하세요. 장담컨대 인생이 신바람날 겁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From Internet ::

##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서 바람이 가장 심한 지역에 서식하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행이 가능한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로서, 날개를 편 길이가 3~4미터 정도이고, 몸길이가 1미터 정도 됩니다. 이 새는 태어나고 오랫동안 날지를 못합니다. 몸집이 크고 뒤통뒤통 걷는 모습이 마치 오리같이 생겼고, 앞모습이 순진한 눈망울을 가진 바보처럼 보여 일명 ‘바보 새’라고도 불립니다. 이 새는 날기 위해 오랜 기간 끊임없이 날갯짓을 연습한 후에 때가 되면 목숨을 걸고 상승기류를 받기 위해 바닷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일단 날기에 성공하면 최고시속 120km 이상으로 날고, 일주일 이상 수천km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바람을 이겨내려고 날갯짓을 하지만, 이 새는 거센 바람을 이용하여 날갯짓을 합니다. 다른 새들에 비해 가장 늦게 날지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비행을 하는 대기만성형 새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결합하면 50년 이상 평생을 함께하고, 암수가 같이 알을 품어 9개월 후 부화하면 새끼도 같이 양육합니다. 골프에서 알바트로스는 5번 만에 홀인해야 하는 홀에서 두 번 만에 홀인할 때 부르는 명칭으로 ‘가장 큰 실력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지금 세상 풍파에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하고자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목표달성이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으시나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된 풍파는 극복하는 노

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계획은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하면 되고, 끊임없이 추구하면 어느 순간 목표지점에 다가온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 성별, 학력, 재력, 권력 등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면 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늦었는지언정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한한 사랑과 축복의 주머니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바로 지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벧전 5:7).

Dr. 이관섭 장로  
kslee@krri.re.kr

## 지혜가 제일이다

애꾸눈에다 외다리이면서 키까지 작은 왕이 있었다. 왕은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다. 어느 날 그 왕이 그 나라 제일의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화가는 왕의 의중을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여 다리 둘에, 두 눈에, 보통 키의 정상인을 그렸다. 이를 본 왕은 우롱당한 듯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 화가를 처형해버렸다. 다음날 왕은 다른 화가를 불렀다. 이미 앞의 사건을 다 아는 터라 불려온 화가는 현실의 모습 그대로 왕을 그렸다. 그러나 그 화가도 처형을 당했다. 애꾸눈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난쟁이인 왕 그대로를 그린 것이다. 세 번째로 불려온 화가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떻게 그려야 왕의 마음에 흡족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다 화가는 왕이 말을 타고 사냥하고

있는 옆모습을 그렸다. 다리 하나는 말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총을 겨냥할 때는 한쪽 눈을 감고 겨냥하기에 이상하지 않았으며, 등을 굽힌 채 말을 타고 있으니 키가 작아 보이지도 않았다. 자연스럽게 정상인처럼 그려졌다. 왕은 초상화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화가에게 큰 상을 내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찌니라”(잠4:7). 또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잠3:18)라고 말씀하셨다. 지혜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잠2:7). 그러므로 정직히 행하여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삶의 지렛대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수중심편집실



:: 생명의 말씀 ::

##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것을 알기에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법궤 운반계획을 세웠다. 새 수레를 가져오며 엄청난 규모의 악대를 준비했다. 그런데 사고가 생겼다.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법궤 호송관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 것이다. 사실 흔들리는 법궤를 잡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은 웃사의 행동은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웃사의 행동에 대해 그토록 진노하셨을까? 그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었고, 오직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율법에 명시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율법을 펼쳐보니 웃사의 행동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칭찬받아야 할 일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영혼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회개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먼저는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다윗은 오벧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깨닫고 3개월 뒤에 법궤를 운반했다. 이번에는 레위 족장들을 통해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운반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 위해서 법궤를 메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배는 땀을 요구한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땀이다. 현금도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것에서 바치는 것이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희생의 마음, 눈이 시리도록 간절히 울며 간구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갈망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세상에 자신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는 부자가 있었다. 사람들도 그를 위대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찾아와 물었다. “당신이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이유가 뭐요?” 부자는 황당해하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말ियो? 내가 만든 회사에는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소.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 주는 일 이야말로 위대한 일이 아니요? 나는 이미 이 나라 2만 가정의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यो. 그러니 나아말로 위대하지 않소?” 그러자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의 말이 틀리진 않았소. 그런데 당신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는지 알려줄 수 있소?” 나그네의 말에 부자는 “그야 뭐...” 라며 말문을 잊지 못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쌓아 두리라 하며 평안히 쉬고 즐기려는 어느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다(눅 12:17~21).

두 사례를 듣고 당신은 무엇을 깨닫는가?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은 것이요, 나아가 예수중심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라 자부한다. 나는 예수중심교회에 오기 전에 타 교회에서 약 8년 동안 신앙 생활을 했었다.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확신은 없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는지 아니면 들을 귀가 없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있으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지 않았는가(요6:38~40). 자기 영혼을 살려야 한다.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라도 죽어 귀신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먼저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의 인을 맞아야 한다. 우리 항상 사후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임택함 목사

# 제자의 편지

안녕하세요, 목사님!  
태안예수중심교회 국승봉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받았던 계시입니다만, 목사님  
을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최근에 목사님  
께 전해드리고 싶은 감동이 와서 더는 미  
를 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로 적어봅니다.  
2013년, 제가 광주예수중심교회 전도사  
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대구전도집회  
(11월 5일)를 마치고 나서, 주중 저녁기  
도회 시간에 부산전도집회(11월 12일)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  
다.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애통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  
에게 부어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영 울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주님이 애통해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  
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  
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국 전도사야, 너는 왜 이초석 목사가 부  
천,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기  
로, 저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것  
과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집회가 아닌가  
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는 “물  
론 그것도 맞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나는 이초석 목사를 가는 곳곳마  
다 무너져버린 영계를 추스르고 다시 회  
복시켜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이 나라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 놓았단다.”라고 하  
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을 잊었고, 오직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  
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전도집회  
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왜 그렇게 애  
통해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전도집회가 11월 12일 부산 벅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렸는데, 그 전에 같은 부  
산 벅스코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  
까지 제10회 WCC(세계교회협의회)총회  
가 열렸던 것입니다. WCC는 종교다원주  
의와 종교융합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입니  
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  
람들도 자신의 문화, 종교, 전통에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고 주장합니다. 가톨릭을 필두로 전 세계  
모든 종교, 심지어 아프리카 토속신앙까  
지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국교  
회는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순수한  
기독교 복음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배도의 물결  
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에  
공개된 WCC 기도문이나 총회 광경을 보  
면 참담한 배도의 실상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총회가 열리고 4일 뒤 부산집회가 열렸  
는데,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참여한  
WCC총회로 인해 무너져버린 이 땅의 영  
계를 보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총  
회장 목사님을 부산 벅스코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

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당부 드리  
고 싶습니다. 우리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  
은 주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의 영계를 이  
끌고 보수하기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세  
우신 분이시라고요. 또한 우리는 목사님  
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로  
중보해야 한다고요. 가끔 영적 파수꾼의  
모습인 목사님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끝  
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악한 영들과 귀신  
들이 물밀 듯이 공격해오는 가운데, 우리  
들의 최전방에서 성령의 검을 들고 그 공  
격을 다 막아내고 물리치면서 힘차게 전  
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요.  
오늘도 작정기도 중 목사님과 기도성회  
를 위해 기도하는데, 또다시 하나님 아버  
지의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총회장 목사  
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더 열심히 기  
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  
요, 목사님! 주님의 명령대로 사역하시겠  
지만, 그 가운데서도 육체를 더욱 돌보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  
역을 감당하시고 이 나라의 영계를 이끌  
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태안예수중심교회  
국승봉 목사

## Good News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단테의 작품 ‘신  
곡’의 지옥편을 보면, 지옥의 대문에는 ‘여  
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  
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작가 토마스 부룩스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슬픔, 비참함과 불행  
을 한꺼번에 다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  
옥의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2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14  
번을 언급하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  
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탈출구가 없는 곳, 이 지옥만은 절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사람들은 죄  
를 지은 사람들이 간다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  
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정

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  
면 죽은 뒤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  
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  
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  
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지옥  
이나, 영생복락의 천국이나?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고난을 위로하는 자

살다 보면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면 읍  
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단련하신 후  
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는 읍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또는 그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일평생  
모아둔 재물이나 쌓아놓은 명예를 잃었  
을 때, 또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한없  
이 무너질 때,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당  
한 읍이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범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힘든 시간을 그렇게 이겨내려 노력한다.  
감사하게도 그런 고통의 시간은 결국 지  
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때가 온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덧 읍에게 본받았던 마음자세로 살아가  
기보다 어찌면 읍의 친구들처럼 신앙생  
활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망각의 축복으로 이전 고통의 깊이를 잊  
게 돼서일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  
로라는 이름으로 ‘내 처지가 너보다 나으  
니 내 옳은 말을 들으라’ 하며 은연중 판  
단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님께서 보시기에도 옳다 주장하며 남의  
처지를 쉽게 판단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  
이신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일  
을 당한다고까지 말한다. 문득 그래서 하  
나님께서도 읍의 친구들에게 노하신 것  
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말은 무엇일  
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잘잘못  
을 분석해주는 말보다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셨다면 그에게 해주셨을 아픔을  
털어주며 마음을 만져주는 말이 아닐까?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 전해주는 입술과  
손길이 되어 상한 마음에 쉼을 주는 것  
아닐까?  
기도한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아닌 마  
음이 점점 커지는 자가 되기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  
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  
었을 때에 영접하였고”(마25:35).

박천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 2019년 10월 1일 (화) 오후2시 서울시청광장



###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본부